

# 고창군, 태양광 설치기준 마련

### 공유수면 1000m 밖에 입지할 것 등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발령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청정한 이미지로 전국에서 인접하고 있는 고창군이 태양광 발전시설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군은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로 청정 이미지가 훼손 되는 것을 막고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주진하고 있는 심원면 부안면 갯벌지역 주변의 자연경관 훼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9일 전했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의 저탄소 녹색성장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장려되고 있지만,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농경지, 주거밀집지역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장소에 대규모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왔다.

이로 인해 도시경관 저해와 공사로 인한 주민들과의 마찰과 농경지 잠식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는 물론 강풍에 의한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태양광발전사업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3000KW 초과와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3000KW 이하의 전라북도지사, 100KW 이하의 고창군에서 각각 허가 처리하고 있으며 사업허가 후 전기설비공사 계획 신고 시 개발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으나 고창군은 이번에 '고창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행정예규로 발령해 개발행위허가 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허가 기준을 마련했다.

연했으며,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고창군이 발령한 발전시설 허가기준은 주요도로에서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과 15호 이상의 자연취타지역으로부터 200m, 공유수면으로부터 10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집단화된 농지의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등 토지의 효율성 제고와 난개발 방지를 통한 생물권보전지역 발전에 어울리는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정당한 자연을 지킬 수 있도록 도내에서 처음으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 마련했다"며 "일관성 있는 행정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연환경과 경관이 아름다운 고창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남원시 도시재생사업 본격 추진한다

### 지원센터 구축·운영방안 마련 등 추진체계 기반 구축

남원시 도시재생사업이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축과 운영 방안 마련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문화·예술로 되살아나는 도시공동체 남원'을 비전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은 원도심권인 동충동, 죽향동 일원을 중심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도비 60억원 등 총 100여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역은 과거 남원역, 시청, 남원의료원 등이 위치하여, 문화·행정·경제 중심지로서 번성했던 지역이었으나, 주요시설 이전 이후, 인구 감소, 노후건축물 증가 등 쇠퇴와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관련부임권에 집중된 관광객을 구도심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매력적인 시설과 접근루트 개발, 장기적으로

는 남원구도심을 하나의 관광목적지로 자리매김하는 전략을 구상하였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의 4가지 목표를 뒷받침 좋은 주민 공동체, 살만한 동네, 돌아온 관광객, 회복되는 근린상권, 예술인과 함께 가는 재생길로 설정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핵심거점공간으로 조성,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배움나루(주민학교) 운영, 사람나눔(집수리 지원), 춘향이 시집가는 날(전통혼례, 신혼여행 축제), 춘뫼거리 조성 등이다.

남원시는 도시재생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서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거점공간 확보와 향후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했으며, 총괄코디네이터(도시재생지원센터장) 후보군을 선정하는 등 추진체계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앞으로 2월말에 있을 1차 관문심사를 시작으로 2차 관문심사,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컨설팅,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심의 등의 절차를 밟게 되며, 지속적인 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주민대학 등을 운영하고 도시재생 사업의 지속가능한 자생능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또한 문화도시, 예가라길 조성사업 등과 연계함으로써 원도심과 관한루원, 남원 예촌 등과 유기적 연계,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소득사업 발굴을 통한 도시재생의 지속성 확보 등 관광재생, 문화재생, 사람중심 재생을 통해 원도심의 활력 도모를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나갈 것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 임실군, 국비확보 대책보고회 개최

임실군이 국가예산 조기 확보를 위해 발빠른 행보에 나서고 있다.

군은 최근 군청 간부회의실에서 '국가예산 확보 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17년 및 '18년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과 중앙공모사업 대응에 관한 성과원소장의 보고와 정점사항 토론회를 열었다.

신광우 부군수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는 지난달 28일 중앙부처 대통령

업무보고가 마무리됨에 따라 정부 정책이 맞는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섬진강댐(육정호) 순환도로 개설, 임실치즈데마공원 조성, 육정호 물문화제합동발로 조성 등에 대해서

는 부처연선성시기 이전인 2~3월에 중앙부처 방문활동을 집중 전개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었다.

이 자리에서 신광우 부군수는 "2017년 정부예산 순기가 10일 정도 단축된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도 선제적으로 국비확보에 나서야 한다"며,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사명감을 갖고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전통장 절임류 롯데 PB 출시

### 성가정식품, '순창민속마을에서 담근' 6종

순창성가정식품 김종덕 대표는 오랜 노력 끝에 마침내 순창민속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롯데마트 대표상품인 PB Prime L 출시를 이루었다.

2015년 12월에 전국 125개 롯데마트 점포에 순창민속마을의 '순창성가정식품'에서 제조·생산한 절임류제품 6종(7종육)이 출시되었다.

더덕, 마늘 등 지역농산물을 순창민속마을에서 전통방식으로 담근 전통장류로 양념하여 제조

'순창민속마을에서 담근'이라는 이름으로 롯데마트 PB로 전국 125개 점포에서 판매 중에 있다.

순창성가정 식품 김종덕 대표는 이를 시작으로 50여종의 절임류를 '순창민속마을'이라는 지속적인 Series 상품을 진행 중에 있다.

순창발효미생물진흥원과 연구개발을 통하여 피클류 제품 및 한식 간장을 이용한 소스 등의 신제품을 개발하여 특허출원하였으며 롯데백화점, 롯데슈퍼 출시를 진행 중이다. /순창=구인규 기자



# 6차산업화 '고창 다섯꺼리 교육' 시작

### 매달 1회씩 총 10회차 진행

고창군이 지역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들을 하나로 연결해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고창 다섯꺼리 교육을 시작했다.

교육은 20일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박우정 군수와 군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설명했다. 매달 1회씩 총 10회차로 진행되는 다섯꺼리 교육은 지역 활성화와 6차 산업 전략과 온·오프라인 마케팅 방법 등 월별 주제 강의와 부가별 모임을 구성해 고창의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고 산업화하며 성공적인 농촌관광산업이 이뤄지도록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고창군에는 수박, 복분자, 장어 등 풍부한 먹거리와 청정고창의 자연풍속에서 쉴 수 있는 잘거리, 갯벌, 산사, 산악자전거 등 체험거리, 선운산 고인돌, 모양성, 청보리밭 운곡습지 등 볼거리, 그리고 다양한 농산물과 가공식품 등 살거리가 풍부하다. /고창=김영식 기자



# 임실군-한국관광클럽 관광객 유치 MOU 체결

임실군은 19일 임실군청 농민교육장에서 한국관광클럽과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심민 군수를 비롯한 이종수 한국관광클럽 회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협약식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임실군이 한국관광클럽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한국관광클럽은 상품개발 및 홍보활동을 추진하는 등 관광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한국관광클럽 40여명의 회원들은 1박2일 일정으로 캠퍼를 실시해 임실의 숨어있는 다양한 관광자원 발굴에 나선다.

1일차 캠퍼는 딸기 옛 만들기 등의 농촌체험과 필봉문화촌의 국악공연을 관람한 후 한옥숙박체험을 통해 도시민의 호응도가 높은 농촌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에 나서며, 2일차는 육정호·국사봉 탐방, 임실N지스체험, 119안전체험, 클레이아트 등 특색 있는 테마별 관광명소를 방문하게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 임실군의회, 제255회 임시회 개최

임실군의회는 지난 19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심민 군수를 비롯한 실과원 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55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24일까지 6일간의 회기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성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 회가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는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대표위원으로 문영두 의원, 결산검사 위원으로 한병해, 임원희 퇴직 공무원을 선임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군 의료원 장례식장 이용 저류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이 군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사용건수가 16건을 넘었다고 밝혔다. 월 평균 5건씩의 장례를 치른 것으로 장례식장 숫자를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숫자다.

특히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은 직영방식으로 운영해 장례비용을 대폭 낮췄다. 군은 조문액 100인(식사)을 기준으로 했을 때 330만원 정도의 장례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민간장례식장 대비 30%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는 걸로 군측은 밝히고 있다.

군은 1일 사용료(지역민 20만원, 관외인 25만원)만 군에 지불하고 장례식장과 장례업체는 군과 협약을 체결한 업체 중에 상주축이 선택하는 등 주민들의 자율 선택사항을 대폭 늘리고 표준화된 비용을 사용해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왔다. /순창=구인규 기자

# 고창다문화센터, 행복프로그램 운영

고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행복플러스 사업'의 일환으로 치유댄스프로그램을 이달부터 주회씩 7회에 걸쳐 진행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들이 문화적 격차와 정착부담감으로 겪을 수 있는 우울증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난 12일과 19일에 진행된 행복 프로그램 '사랑은 언제나 happy, 행복은 우리 손에 달려'는 축령산 자연휴양지에서 숲과 함께하는 의사소통과 감정치유 등 다양한 교육과 체험으로 다문화가족 부부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고창=김영식 기자



# 제이앤제이그래픽

간판, 현수막, 표찰, 현황판, 실사출력전문, 안전용품, 가구, 커튼, 차량랩핑

Tel. 063-633-1201  
Fax. 063-633-1203  
e-mail . 6331201@hanmail.net